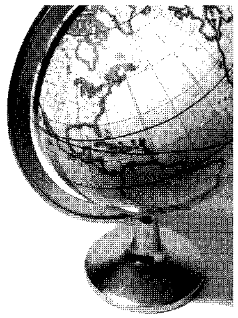

中 멜라민분유 주범 사형 확정

'멜라민 분유' 사건의 주범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허베이(河北)성 고급 인민법원은 26일 싼루(三鹿)사 텐원화(田文華)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멜라민 혼합 단백질 분말 생산 · 판매업자인 장위쥔(張玉軍)과 낙농업자 겅진핑(耿金平)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톈 전 회장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중국은 2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심이 없는 한 이들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중국에서만 지난해 영 · 유아 6명이 숨지고 29만 6000명이 신장결석 등의 질환을 앓은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중국 정부는 이달 초 사상 처음으로 식품안전법을 제정, 식품 및 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08년 젖소 9백16만두, 1인당 우유 240kg 소비

'08년 러시아 젖소두수는 9백16만두이며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240kg인 것으로 러시아 연방통계청과 농산물시장 조사연구소가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육두수는 '92년 2천만두에서 절반가량 감소한 두수로 우유생산량은 년간 4천7백2십만톤에서 '08년 3천2백4십만톤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두당 생산량은 크게 향상하여 '95년 2천7kg에서 '08년 4천24kg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러시아 시유가격은 1리터 기준 40루불(1천615원) 수준이고 소비자들은 저지방유 보다는 6%까지 고지방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우유소비량이 감소하자 정부에서 대대적인 우유소비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분유로 조제된 가공유는 '유음료'라는 표기를 의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녕하세요~" 美 CF에 한국말 하는 소 등장 '화제'

"안녕하세요~." 미국 TV 광고에 한국말을 하는 소(?)가 등장해 화제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우유 권고 위원회(The California Milk Advisory Board, CMAB)는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지역에 현지산 유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TV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 광고 중 젖소가 나와 어눌한 한국말을 구사하는 내용이 현지 교포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

해당 CF는 CMAB 측에서 벌인 해피 카우 광고 경연대회에 한국 사람이 만들어 보낸 것으로 CF에 등장하는 소는 '수'(Soo)라는 예명을 갖고 있다.

이 CF에서 젖소는 성우의 목소리를 빌어 서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이제는 저도 꿈에 그리던 미국 땅에 오게 해주세요"라며 "저도 행복한 캘리포니아 소로 꼭 뽑아주세요. 끝없는 들판에서 즐겁게 뛰놀고 싶거든요. 땡큐~"라고 해 보는 이들을 폭소케 했다.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미국인들을 위해 CF 속 한국말은 동시에 영어로 자막처리 됐다.

캘리포니아의 좋은 낙농 환경을 세계 곳곳의 젖소들이 모두 캘리포니아로 가고 싶어한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 광고는 현재 광고 경연대회 결선에 올라 다른 아홉 작품과 함께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 광고를 본 현지 교민들은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말 나오는 광고를 보고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대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광고를 재미있게 즐겼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한국 소를 비하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좀 언짢다", "한국은 소마저도 미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것으로 그려져 기분이 나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씁쓸해했다.

자료출처 : (www.realcaliforniamilk.com/auditions/)
(www.themoscowtimes.com)
(www.realcaliforniamilk.com) 등